



2020 새로운 출발

[vol. 0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SPECIAL THEME 2020, 새로운 출발

- 04 축하 메시지** 소통 플랫폼 '삼다소담'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경수
프로골프선수 고진영 프로
프로골프선수 박인비 프로
- 08 Theme 1** 2020년을 더 의미 있게, 더욱 힘차게!
2020년이 특별한 4인
- 12 Theme 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년설계
“사상 첫 매출액 3,000억 원 돌파,
2020년에 꼭 이루겠습니다”
- 16 Theme 3** 사랑으로 채운 2019년, 2020년은 희망으로
삼다수봉사대 결산 및 포부

제주의 물 제주 땅 속의 보물, 지하수

- 22 Number** 숫자로 보는 제주 지하수와 삼다수
- 26 Scenery** 한라산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삼다수 마을
- 32 Story** 제주삼다수는 왜 맛있을까?

발행일 2019년 12월 30일
발행인 오경수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통협력팀
전화 064)780-3396
홈페이지 www.jpdc.co.kr
편집·제작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 〈삼다소담〉은 예로부터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제주의 특징을 표현한 '삼다(三多)'와 즐거운 이야기를 뜻하는 '소담(笑談)'을 조합한 이름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대표하는 소통 플랫폼입니다.
- 〈삼다소담〉은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기고된 글과 사진은 공사의 공식견해가 아닌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며,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제주 공감

- 34 놀멍놀멍 복서에** 제주 거울왕국으로의 초대
- 38 소뭇 사랑햄수다** 삼다수 페트병이 지구를 지킨다고?



공사 소식

- 42 뉴스 포커스** 2019년 파트너스 데이 개최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은메달 수상
- 46 JPDC 뉴스** 유튜브 바이럴 영상 2탄
‘삼다스톤의 비밀’ 360만 뷰 돌파 외
- 50 제주개발공사 Channel**

소통 플랫폼
‘삼다소담’에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오 경 수



‘소통’의 시대입니다.
외부 고객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조직 내 구성원 간의 소통까지, 진정한 고객 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조건이 ‘소통’입니다. 한 기업이 백 년 기업으로 장수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합니다.

제주도민의 대표 공기업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이 같은 소통의 가치를 담아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인 ‘삼다소담’을 창간했습니다.

‘삼다소담’은 예로부터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제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삼다(三多)’라는 단어와 즐거운 이야기를 뜻하는 ‘소담(笑談)’을 조합했습니다. 소담은 순우리말로 ‘탐스럽다’ ‘풍족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도민의 기업으로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공사인들의 이야기, 제주의 즐거운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독자들에게서 즐거워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특히 ‘삼다소담’에서는 도민기자단 ‘수(水)포터즈’가 직접 소개하는 차별화된 콘텐츠들도 담을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 보고 체험한 살아있는 뉴스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난 1995년 3월 9일 설립되었습니다.

24년의 세월 동안 척박한 황무지를 개척하며 모진 풍파를 견디고, 도민의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는 공사 임직원들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노력과 더불어, 제주삼다수를 사랑해주신 고객과 도민의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소통 플랫폼 ‘삼다소담’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다소담’의 행복한 소식을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시길!



골프선수 고진영 프로

안녕하세요, 고진영 프로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첫 웹진 ‘삼다소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매거진이라면 제가 어디에 있든 쉽게 볼 수 있겠네요. 책으로도 나온다고 하니 정말 기대돼요.

‘삼다’의 즐거운 이야기를 담은 ‘삼다소담’이 들려줄 행복한 소식을 많은 분들이 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삼다수 마시고 열심히 임해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삼다소담’ 화이팅!

‘삼다소담’처럼 즐거운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골프선수 박인비 프로

안녕하세요, 박인비 프로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온·오프라인 소식지 ‘삼다소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삼다소담’의 뜻이 삼다의 즐거운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처럼 제주의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담은 소식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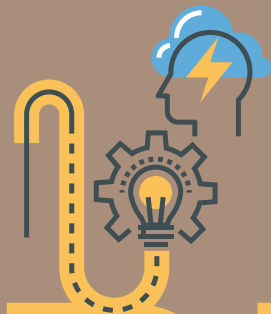
늘 저를 응원해주시는 제주개발공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 또한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개발공사 파이팅!
‘삼다소담’ 파이팅!

창간 특집

START

새로운 출발



2020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누구나 같지 않을까.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 희망을 가득 담아 준비하는 것. 2020년을 맞는 제주개발공사 사람들의 다채롭고 뜻 깊은 이야기들을 만나본다.



년을

더 의미 있게,
더욱 힘차게!

새롭게 시작하는 2020년. 누구에게나 새해의 시작은 의미를 가지기 마련이지만, 2020년이 더욱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이제 막 20세가 되는 신입사원, 쥐의 해에 태어난 직원, 입사 20주년을 맞는 장기근속자 등 2020년을 더욱 의미 있게 맞이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네 사람을 만나보자.

글 권내리 사진 정익환

학업과 업무 모두 잘 해내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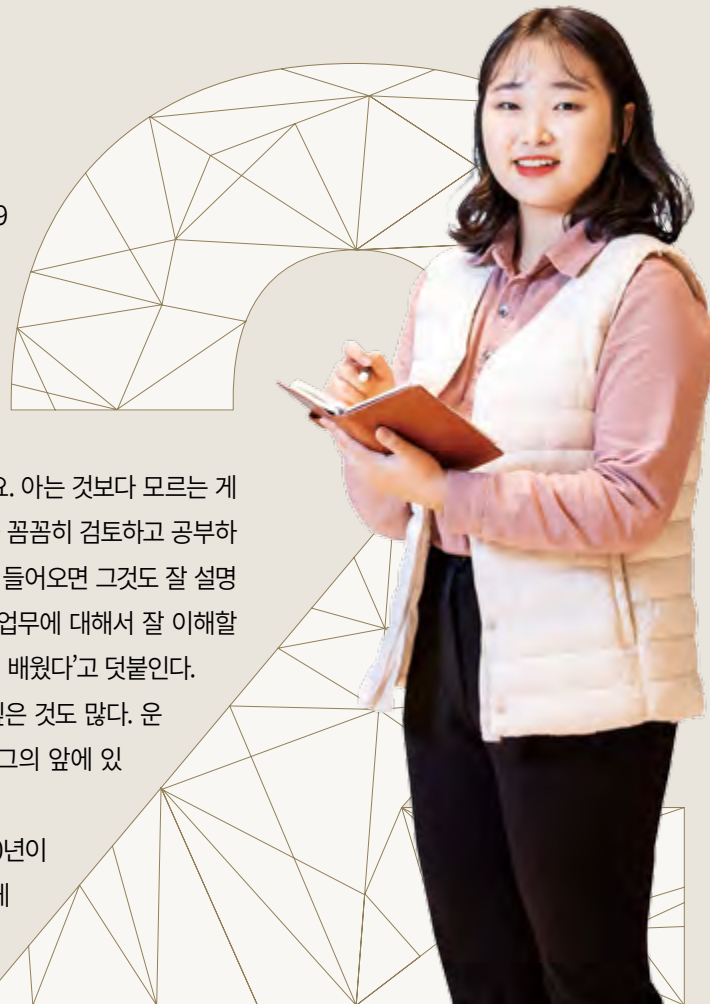
20세 신입사원 재무회계팀 김진희 사원

2019년 2월 입사한 신입 김진희 사원. 면접에서 ‘2019년 새해, 입사라는 복을 받고 싶다’고 당차게 말했던 지원자가 벌써 입사 1년차가 됐다. 처음 하는 사회 생활, 처음 해보는 회사 업무 등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서 보낸 지난 일 년은 그에게 도전의 연속이었다.

“저는 영업부서와 품질연구부서의 지출을 맡고 있어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서 틀리고, 고치는 게 있었어요. 관련 규정을 꼼꼼히 검토하고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그것도 잘 설명드려야 하니 쉽지 않더라고요.” 김진희 사원은 ‘지출 업무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소통능력이 중요한 것을 일하면서 배웠다’고 덧붙인다.

이제 갓 20살인만큼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도 많다. 운전면허, 자격증 공부 등 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지금 그의 앞에 있는 도전과제는 바로 대학 진학이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2020년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학업과 업무를 병행하는게 쉽지는 않겠지만, 두 가지 다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요.”



2020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0년 장기근속 물류관리팀 박영만 과장

2000년 1월 3일 입사했으니 꼬박 20년이다. 21세기의 시작을 공사와 함께 시작한 셈이다.

“감굴1공장이 설립되면서 입사했고, 그 이후로 가공용감굴 수매업무를 13년간 해 왔습니다. 가공용 감굴 가공과 수매처 및 감굴 농가 수매 민원처리 업무를 했죠.”

당시 IMF 외환위기로 하던 일을 접고 공사에 입사한 그에게 그 시절은 잊지 못할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첫 월급날이었는데 월급 봉투를 받아보니 60~70만 원 정도 됐어요. 지금은 퇴직하신 당시 공장장님이 ‘박영만 씨, 그 돈으로 가정생활 꾸려나갈 수

있겠어요?’ 하시는데 대답은 못하겠고, 그냥 웃기만 했죠.” 지금은 물류관리팀에 배치되어 공사 제품들이 공장에서 소비처까지 원활하게 이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주항만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입사한 2000년도 의미 있지만, 2020년은 박영만 과장에게 어느 때보다 뜻 깊은 해이자 소중한 해다. 공사와 함께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 “12월 말이면 퇴직을 해서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고민이 많지만, 지금 일을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하고 싶어요.”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인사교육팀 이유정 사원 20세 신입사원

“2019년이 그새 지나갔다는게 믿기지 않아요. 일년을 돌아보면 실수도 많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고요. 매번 ‘왜 실수했지, 이때 이렇게 할 걸’하는 생각을 자주 해요. 2020년부터는 그런 아쉬움을 확 줄이고 싶어요.” 이유정 사원은 ‘틀리지 않고 한 번에 시원하게 업무를 처리해보고 싶다’며 웃는다.

이유정 사원은 인사교육팀에서의 지출 업무, 특히 출장 정산을 맡고 있다. 공기업이니 만큼 규정에 맞는 지출, 필요한 관련 지식 등이 만만치 않다. “어떤 근거로 비용이 지출 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분류해야 되는지 등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매번 관련 법령을 뒤지고 사례를 찾아봐도 매번 모르는 부분이 생겨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출장비 잘 받았다’고 인사해주는 분도 있어서 힘이 나요.”

2020년을 맞아 이유정 사원이 세운 첫 새해 계획은 ‘운전면허 따기’다. 잠이 많은 편이라 늘 서둘렀던 아침 출근시간에 여유를 갖고 싶기 때문. 스무 살의 첫 차를 운전하며 출근하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보다 즐거운 현장, 쾌적한 환경을 위해

쥘띠 생산지원TFT 양윤희 팀장



2020년 경자년, 십이간지 중 첫 번째인 쥐의 해다. 72년생 쥘띠인 생산지원TFT 양윤희 팀장은 ‘2020년은 십이간지 동물 중 가장 첫 번째인 쥐의 해이자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이런 의미 있는 해에 우리 공사 사보 창간호에 나오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미소 짓는다.

양윤희 팀장의 업무는 현장의 조직문화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 가족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가족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통 간담회 개최, 벤치마킹을 통한 만족도 향상 등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장 직원들이 화합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양윤희 팀장은 ‘오래 전에는 직원들 서너 명이 모여 함께하는 경우도 많았다’며 회상한다. “한동안 붙어있던 DDR(반주에 맞춰 스텝을 밟는 놀이기기)을 하려고 모임도 갖고 했었어요. 지금은 직원도 많고 근무지도 달라 서로 얼굴 보면서 차 한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많이 아쉽죠.”

2020년 양윤희 팀장의 목표는 역시 현장 직원들의 만족이다. “현장 직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휴게공간 마련, 소통 프로그램 운영, 구내식당 품질개선 등 현장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신년설계

“사상 첫 매출액
3,000억 원 돌파,
2020년에 꼭 이루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사상 첫 매출액 3,000억원 돌파’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각 오를 다지고 있는 것.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에게 그동안의 성과와 2020년 공사의 신년 계획을 들어본다.

정리 편집실



**Q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는 소회가 어떠신지요.**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2017년 공사에 부임한 후 ‘두드림(Do Dream), JPDC!’를 경영 슬로건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두드림(Do Dream)은 열심히 두드려 장벽을 깨뜨리고 꿈을 실현하자는 뜻으로, 우리 공사는 지난 3년간 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9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먹는샘물 사업은 혁신경영을 토대로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감귤 가공과 음료사업,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개발사업 등 제주의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그 가치가 또 다른 새로운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에 더 박차를 가해 제주의 미래를 이끄는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2020년에는 현재까지 이뤄낸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Q 2019년 주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요.**

우선 먹는샘물 사업은 안정적인 생산체계 운영과 품질관리 강화에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노후 생산설비를 철거하고 안전을 위한 보호 장치를 강화



키자니아 체험관 오픈

하였으며, 설비고장 정비 프로세스를 재정립함으로써 ‘선(先)품질, 후(後)생산’ 원칙의 체계를 갖췄습니다.

한층 고도화된 물류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추적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인프라도 개선했습니다. 물류 거점 확보 및 물류 정보화를 위한 중장기 물류발전방안도 세웠습니다. 수자원 보전과 관리 모델 정립을 위해 지하수 조사와 연구를 강화했으며 표선유역 지하수 종합조사계획을 수립해 2020년부터는 본격적인 지하수 종합연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주삼다수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 지향의 마케팅과 영업활동도 전개했습니다. 미래 고객인 어린이들을 위해 직업체험 플랫폼으로 인기 있는 ‘키자니아’에 입점하고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영상 광고를 진행하는 등 브랜드 협업과 제품 PR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교육과 관광을 접목시킨 에듀투어 개념의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견학로 운영도 시작했습니다. 감귤가공사업 관련해 감귤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감귤 부산물 처리시설도 가동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도 나섰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부문에서는 신규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개발사업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신사업 모델을 발굴했습니다. 또한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서귀포시 월평지역 도시재생사업도 착수했습니다.

Q 제주개발공사의 내실을 기하는 경영 부문의 주요 성과는 무엇인가요?

우선 전사적 안전 관리에 힘을 쏟았습니다. 2019년에는 안전관리 취약부분 관리를 강화해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했습니다. 미래경영 혁신 체계도 확립했습니다.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설정하고, 혁신 변화관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 및 조직 환경 변화에 발맞춰 인사 노무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용역을 추진해 2020년 조직 및 인사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친환경 태스크포스팀도 신설해 협업을 기반한 친환경 경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의 대표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 경영도 강화했습니다. 2019년 9월에는 세계 최대 자발적 기업시민 그룹인 ‘유엔 글로벌 콤팩트(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UNGC)’에 가입해 인권과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Q 2020년 제주개발공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보고대회’서 발표하는 오경수 사장

Q JPDC형 사회적 가치 체계는 어떤 것인가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는 공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우리 공사만의 사회적 가치의 개념을 정의하고, 추진전략과 실행 체계를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중소 사회적 기업과의 상생협력,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실행, 인권경영 실행, 사회적 약자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 보고서를 제작해 홍보하고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Q 대한민국이 아끼는 물 제주삼다수에는 어떤 혁신이 있을까요?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 개회식, 기조강연하는 오경수 사장

Q 2020년을 시작하는 포부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2019 JPDC 파트너스 데이에서 인사말을 하는 오경수 사장

이 외에도 신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조직과 인사관리 체계도 혁신해 나갈 것입니다. 중장기 인사전략을 수립해 인사노무제도 개선, 직무 중심 경력개발 운영체계 구축, 교육훈련체계 재정립도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통과 상생의 노사 및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재난 안전 통합관리체계와 친환경 경영도 강화하겠습니다. 친환경 경영실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통합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 R&D 선도 사업 발굴, 제주 물 가치 극대화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삼다수는 국내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파워 1위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품질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품질을 지키면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통과 물류 혁신을 통해 판매 경쟁력을 강화해 치열한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해 나갈 것이며, 먹는샘물 사업을 바탕으로 공사 사상 첫 매출액 3,000억 원 돌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안정적인 생산 관리 체계 확보를 위해 제주삼다수형 스마트 팩토리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ICT를 활용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관리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것입니다.

생산과 품질 관리 체계 운영도 고도화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체계를 고도화해 용기 경량화, 라벨분리표시, 환경성적표지인증 적용 제품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포장재 재질구조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등 저탄소 제품 인증 취득 기반을 마련하고 품질 리스크 예방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품질 강화를 위한 연구 R&D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지하수의 과학적 관리 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하수위 변동 예측 연구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포장구조 개선, 용기 다양화, 친환경 패키징 소재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공사의 제주삼다수 사업은 지역의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가치를 창출해 제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다수 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삼다수 신화의 원천이 되는 제주의 청정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삼다수로 창출한 수익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사업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주인은 제주도민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고객 여러분에게 ‘행복’을, 도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공기업이 되는 한 해가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삼다수봉사대 결산 및 새해 포부

사랑으로 채운 2019년, 2020년은 희망으로!

제주도민을 위해, 지역사회를 위해 출범한 삼다수봉사대. 2005년 창단 이래 복지시설 지원, 김장 나눔, 집수리 봉사 등 어려운 지역사회의 이웃을 돕는 활동부터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는 다양한 정화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삼다수봉사대의 활동을 사진으로 만나보고, 2020년 포부도 함께 들어본다.

정리 편집실 사진 삼다수봉사대, 정익환

15년간 꾸준히 사랑을 전파한 삼다수봉사대

삼다수봉사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활동이다. 공사는 2005년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도민의 기업으로 다시 한 번 거듭나기 위해 '삼다수봉사대'를 창단했고, 공사 임직원 780명이 나서 창단 후 15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삼다수봉사대는 제주 내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복지시설 지원을 비롯해 김장 나눔과 빵 만들기, 집수리 봉사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한혈, 수능 응원, 태풍 피해 복구, 4.3 추념식 행사 지원 등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특히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을 지키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쳐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3월 23일

조천리 용천수 환경정화활동



4월 3일

제71주년 4.3희생자 추념식 행사지원



2019년 한 해 동안 삼다수봉사대가 총 55회의 봉사활동을 목표로 11월까지 펼친 공식 봉사활동은 무려 47회에 달한다. 한 달에 적어도 3회 이상 봉사활동을 실시한 것. 여기에 태풍 피해 복구 같은 긴급 봉사활동을 더하면 일주일에 1번은 삼다수봉사대의 봉사활동이 있었다는 이야기다. 현재까지 총 47회의 공식 봉사활동에 참여한 공사 임직원은 모두 940명으로 한 사

람당 1번 이상 참여했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 삼다수봉사대 활동을 더욱 강화해 제주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의 희망찬 2020년이 더욱 기대된다.

2019년 삼다수봉사대 활동



창단 2005년



봉사활동 총 47회
(일주일 1회)



참가자 수 940명
(직원 1인당 1회 이상)



5월 25일

삼양유원지 환경정화활동



8월 6일

사랑의 헌혈 행사

9월 9일
나눔배움 봉사활동 사랑의 빵 전달



10월 25일
희망나눔 바자회 수익금 기탁



11월 14일
2020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 봉사활동



10월 8일
태풍 피해 복구 지원



10월 26일
애덕의 집 시설봉사



11월 15일
민·관 협력 자구리해안 연안 및 수중 정화활동



I N T E R V I E W

“
더욱 가치 있는
봉사활동으로 다가가겠습니다
”



사회가치팀 오승현 팀장

Q 2019년 삼다수봉사대의 활동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무엇인지요.

이번에 우리 사회가치팀에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지역사회 혁신 프로젝트에 역점을 뒀는데요, 지난 11월 15일 실시한 자구리해안 연안 및 수중정화활동이 그것입니다. 실제 실행되면서 다소 형식적인 봉사활동처럼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도내 단체, 기업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제주 지역의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봉사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지난 일년간 활동에서 아쉬운 점은 어떤 것 인지요.

지난 5월 사내공모전을 통해서 7가지 특화 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했습니다. ‘아쿠아맨 뭐하맨? 재활용 하맨’, ‘건물생심 프로젝트’, ‘방방곡곡 정화 릴레이 운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JPDC가 간다!’, ‘찾아가는 삼다수 보건소’, ‘Hands-On 봉사활동’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을 다 추진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2020년 봉사대 운영계획에 반영해서 특색 있고 재미있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진행하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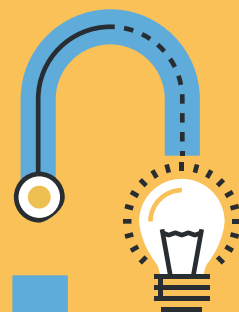
Q 2020년 활동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현재 삼다수봉사대는 팀별, 본부별, 총괄별 또는 전사 차원에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이 봉사를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내 봉사 동아리를 만들어 자신이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자발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제주 내에 쓰레기 문제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플라스틱 프리 아일랜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맞춰 환경 캠페인과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좋은 활동들을 통해 수혜를 받는 분들과, 자원봉사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람을 느끼고 또 참여하고 싶은 활동들을 기획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10년을 내다보면 전략에 집중하지만, 100년을 내다보면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도민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JPDC VALUE+ (Nature+, Culture+, Human+, Happy+, With+)에 걸맞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2020년도에는 함께하는 우리, 변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주 땅 속의 보물



Under-ground

WATER



생명의 근원이자 생태계를 움직이는 물. 예부터 제주의 사람들은 물이 나오는 곳을 따라 마을을 이루고 살아왔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의 온기가,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피어났다. 그리고 지금, 제주의 땅 속에 흐르는 지하수는 제주의 귀중한 자원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제주 땅 속의 보물, 지하수를 만나본다.

지하수

숫자로 보는 제주 지하수와 삼다수

제주에는 강수량이 풍부하고 투수성이 좋은 화산암층으로 이루어져 청정한 지하수가 풍부하다.
제주의 소중한 자산인 지하수의 특성과 삼다수 이용 현황을 숫자를 통해 한 눈에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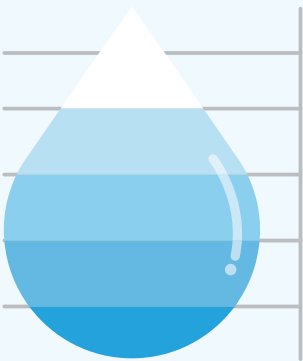
구성 편집실
참고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 종합계획(20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삼다수 이야기>



제주 지하수 함양량

16억 400만톤

제주에 내린 빗물은 34.9%가 증발산작용으로 사라지고, 24.5%가 하천유출로 사라진다. 나머지 40.6%인 16억 400만톤이 땅속으로 침투해 지하수가 된다.



지속이용가능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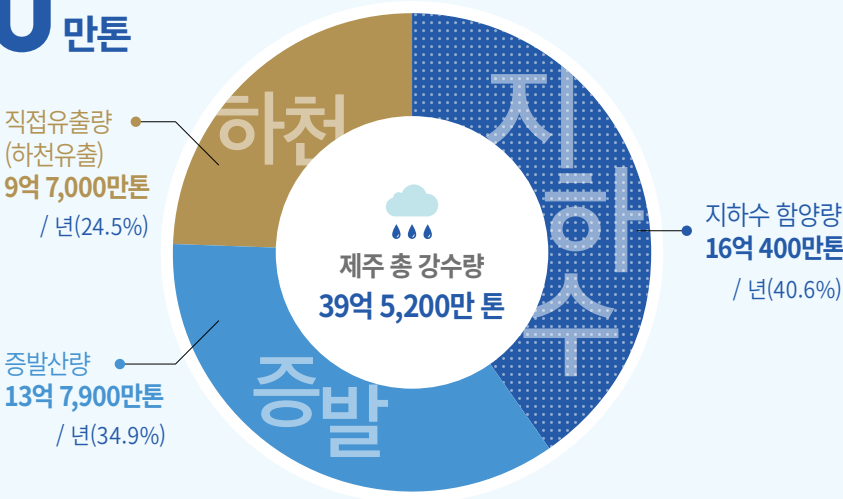
6억 5,200만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함양량의 40.6%인 6억 5,200만톤을 지속이용 가능량으로 설정해 지하수 보전과 관리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제주 수문총량

39억 5,200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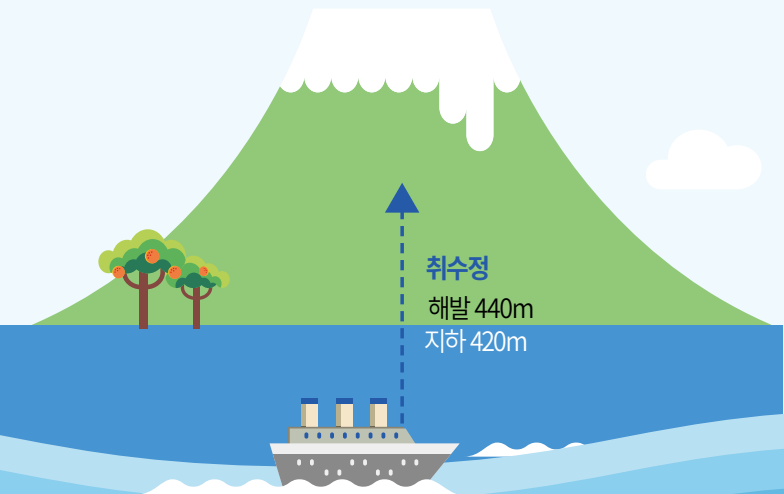
제주의 연평균 강수량은 2,162mm로 전국 평균 연강수량인 1,386.9mm보다 훨씬 많다. 1년 동안 제주에 내리는 빗물의 총량은 39억 5,200만톤이며, 특히 삼다수 공장이 있는 지역은 연간 평균 강수량이 2,765mm에 달하는 다우지역으로 연간 총 강수량은 5억 5,500만톤이다.



제주삼다수 취수

지하420m

제주삼다수는 해발 600m에서 1,200m의 한라산국립공원 지역에 내린 빗물이 지하로 침투해 생성된다. 오염원이 없는 지역에서 생성되므로 수질오염 우려가 없고, 다공질 용암층을 따라 깊숙이 이동하면서 깨끗한 지하수가 형성된다. 제주삼다수를 취수하는 취수정은 해발 440m로, 지하 420m 심층에서 지하수를 끌어 올린다.





제주삼다수
대체용수 활용률

97.6%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 취수량의 최소화를 위해 제주삼다수는 전체 냉각용수 수요량의 97.6%를 공 정용수 재활용과 빗물로 활용하고 있다. 연간 약 5만 5,000톤의 지하수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취수원 주변
관측정 설치

14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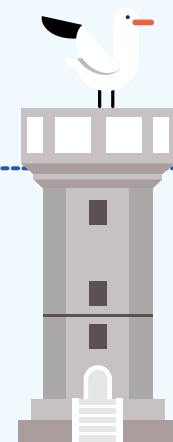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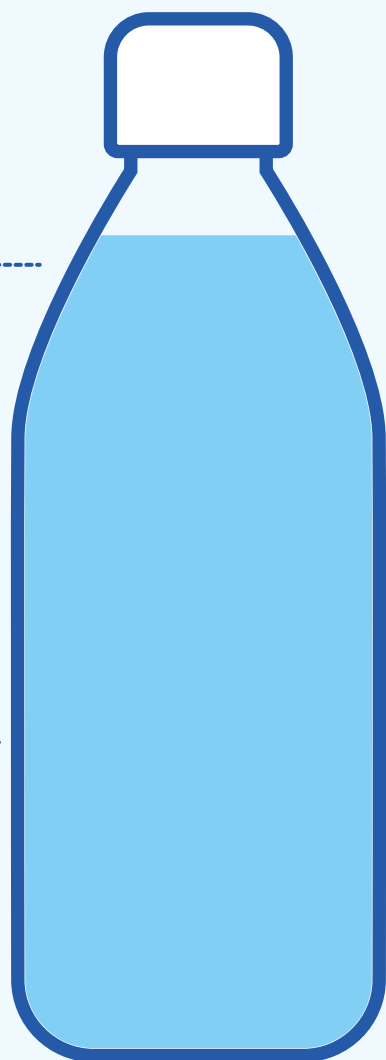


취수원 관리를 위해 주변 14개소에 관측정을 설치, 지하수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 감시하고 있다. 1시간 간격으로 지하수위, 수온, 전기전도도, pH 등을 실시간 관측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측에 의하면 수위가 내려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수질
변화 없는

20년

제주삼다수는 1998년부터 20여년 간 원수와 제품수의 수질검사를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20년 간 중금속과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아 수질변화가 없는 안전한 물임을 입증했다.



제주삼다수의
나이

18년

땅에 스며든 빗물이 수십 겹의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무려 18년이다. 층층이 쌓여있는 수십 겹의 화산암반층은 천연 필터 역할을 하는데, 기나긴 시간동안 이 화산암반층을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지고 유익한 미네랄이 함유되게 된다. 우리가 마시는 제주삼다수는 무려 18년 동안 걸러진 물인 것이다.

제주삼다수
연간 취수량

168만톤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표선지역 일대는 연간 5억 5,500만톤의 비가 내린다. 이중 지하수가 되는 양은 40%인 2억 2,200만톤인데, 제주삼다수는 지하수 보호를 위해 표선유역 지하수 생성량의 0.8%인 168만톤만 사용한다.



한라산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삼다수 마을

조천읍 교래리

글, 사진 김윤정 여행작가

한라산 아래 첫 마을, 한라산의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교래리는 대체로 해발고도 300~700m에 이르는 넓고 평탄한 중산간 지대의 초원, 자연 그대로의 꽃자왈과 맑은 물을 품은 목가적 풍경의 청정한 산촌이다. 교래 꽃자왈, 돌문화 공원, 교래 퇴적층 등의 지질학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삼다수 숲길, 희귀 생명 군락 등 생태학적 가치와 교래 본향당, 산마장, 잣성 등의 문화적 가치를 모두 지니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대표 명소로서 청정 생태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앞에는 한라산, 옆에는 울창한 삼나무의 행렬

교래리 마을을 찾아가다 보면 날렵하게 솟아오른 삼나무의 행렬이 이어진다. 그 그트머리에 삼다수 마을 초입임을 가르쳐 주는 안내판이 보인다. 그리고 유유자적 풀을 뜯는 초원의 산책자 말들도 보인다. 진동하는 초록의 내음과 짙은 시야가 도심 속에 찌든 몸과 마음을 한결 가볍고 상쾌하게 해준다. 이젠 그만 가볼까 하는 순간 뺨에 엮어오는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 넓게 펼쳐진 억새 숲이 온통 황금빛 춤판이다. 저 멀리에는 심지어 한라산과 오름들이 당당하게 멋을 부리고 있다. 맑은 공기를 힘껏 들이 마시고 큰 숨을 시원하게 뱉어냈다. 무언가 후련해지는 기분이 든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명소답게 교래리 마을은 초입부터 마음을 사로잡는다.

교래리는 약 700여 년 전 화전민들이 들어와 마을을 이루기 시작했다. 교래리 옛 이름 ‘두리(도리, 다리)’의 유래는 한라산으로부터 흐르는 크고 작은 하천의 다리를 건너서 마을을 오고 다녔기 때문이라는 설과 마을의 남서쪽(대원목장)에서부터 하동(뒷송문)에 이르는 약 1km의 긴 암반을 다리 삼아 건너다

뺨에 엮어오는 살랑거리는 바람 소리,
넓게 펼쳐진 억새 숲이
온통 황금빛 춤판이다.

저 멀리에는 심지어 한라산과
오름들이 당당하게 멋을 부리고 있다.

냈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라는 설이 있다. 그래서 다리 교(橋)을 래(來) 자를 써서 ‘교래리’라 부르게 되었다. 삼다수 마을이라는 명칭은 1998년부터 교래리 마을에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들어서면서 행정구역명과 제품명을 합친 ‘교래 삼다수마을’로 부르기 시작하면서다. 어느 하나 유심히 보지 않고는 지나칠 만한 곳이 없을 정도로 교래리는 곳곳에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다채롭고 흥미롭다. 교래 사거리를 중심으로 북쪽 방향으로의 제주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남쪽 방향으로의 삼다수 숲, 삼다수 공장, 제주경주마육성목장 동쪽 방향으로의 토종닭 특구,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 산굼부리 그리고 서쪽 방향인 교래입구 비자림로에는 사려니 숲이 있다.

다채롭고 흥미로운 교래리로의 여정

제주돌문화공원은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를 중심으로 제주가 만들어진 과정과 제주 사람들 삶 속에 녹아 있는 돌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박물관이자 생태공원이다. 신화, 역사,

민속문화에 관심이 있다면 이곳에서 하루를 다 내주어도 좋다. 특히 공원 내 돌박물관에서는 제주가 생성된 태곳적 신비를 지질학적 설명으로 잘 정리해 놓아 누구나 제주에 있는 용천수가 무엇인지, 왜 바닷가에 현무암이 많은지를 쉽게 배워볼 수 있다. 초원 위의 말, 한라산, 오름이 서로 어울려 빚어낸 목장의 풍경은 제주 아닌 곳에서는 볼 수 없다. 교래리는 조선시대 국영목장이 있었던 곳인 만큼 넓은 초원 위에서 승마를 즐길 수 있는 목장들이 쉽게 보인다. 그냥 탁 트여 있는 고즈넉한 풍경만 가만히 보더라도 가슴이 뻥 뚫린다. 교래리를 간다면 제주 고유의 목가적 풍경을 놓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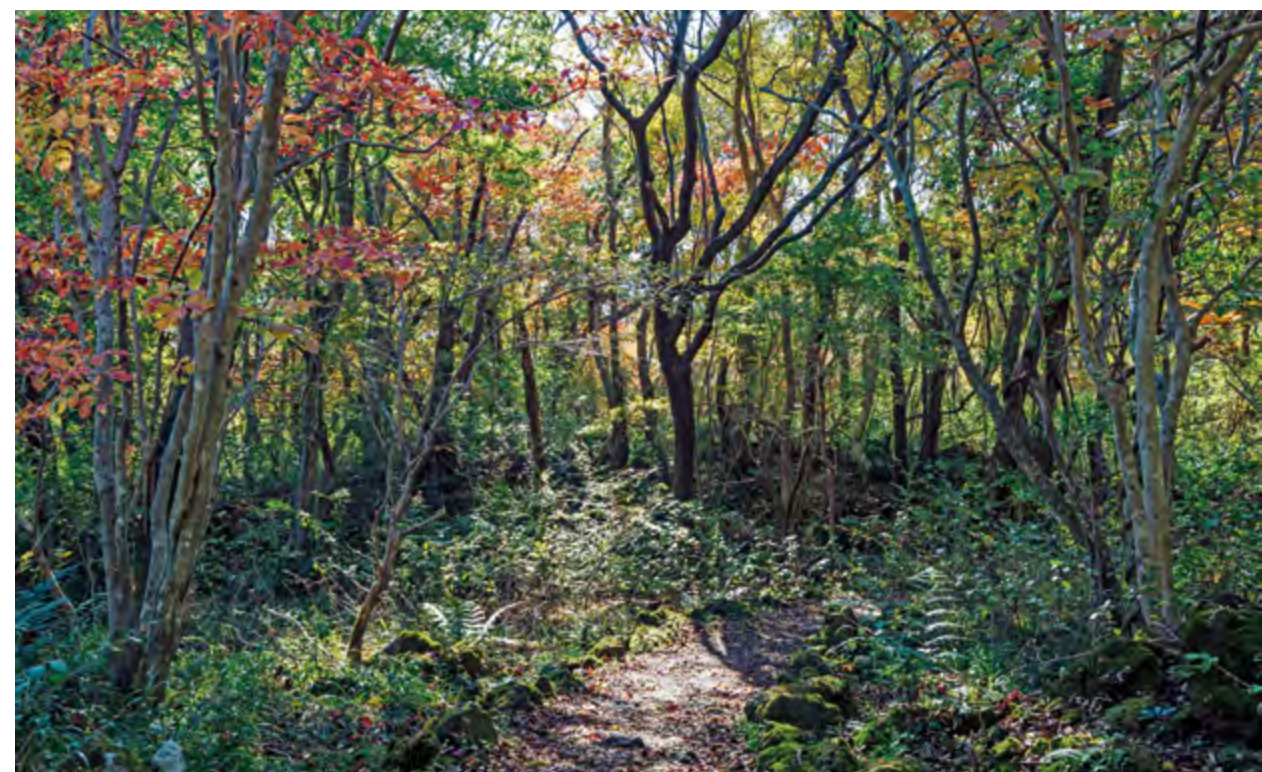
크고 작은 오름들이 17개가 있는 교래리에서 가장 유명한 오름이 산굼부리다. ‘굼부리’란 말은 화산체의 분화구를 일컫는 고유 제주말로 화산체의 모양이나 크기에 상관없이 굼부리 혹은 움부리라고도 한다. 분화구 주변이 무너지면서 만들어진 산굼부리는 백두산 천지의 축소판이라고도 하는데 분화구 주변이 모두 목장 형태여서 막히는 풍경이 없다. 그래서 날리는 바람 따라 마음까지 시원하다. 산굼부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역시 가을 억새다. 구름도 쉬어간다는 세계 유일의 평지 분화구

인 산굼부리에서 해가 지기 전 활짝 핀 억새의 춤추는 물결을 만나면 감탄하고 또 감탄하게 된다.

생명의 숲,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다

무엇보다 교래리의 으뜸은 숲이다. 교래리는 제주 생태계의 허파라 불리는 곳자왈 지대에 자리 잡고 있다. 곳자왈은 숲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곳’과 자갈을 의미하는 제주 사투리 ‘자왈’을 합쳐 만든 글자인데 용암이 만들어낸 요철 지형에 나무, 덩굴식물, 돌 등이 어수선하게 뒤섞여 숲을 이룬 곳이다. 하늘도 안 보일 정도의 높게 뻗어 있는 초록 숲을 터벅터벅 걷는데 차가워진 심장이 통째로 살아나는 기분이다. 교래자연휴양림, 사려니 숲, 삼다수 숲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상처투성이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마음 하나하나를 충분히 치유해줄 만큼 ‘생각을 버리고 천천히 걷기에 좋은 숲’이다.

교래자연휴양림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이지역으로 우도(牛道)를 따라 곳자왈 생태관찰로와 오름산책로를 개설했다. 좁은 산책로 외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이 거의 없어 자연 모습을 거의 그대로 느낄 수 있다. 사려니 숲은 유네스코가 지





정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천이 초기의 소나무 숲, 소나무와 졸참나무 숲, 삼나무 숲, 서어나무 숲 등 다양한 숲의 형태를 볼 수 있는데 숲길 대부분이 화산송이와 흙으로 되어 있어 걷기에 아주 편안하다. 주차 공간이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를 먼 곳에 주차해서 걸어와야 하지만 그 덕에 아름다운 비자림로를 걸어볼 수 있으니 이 정도의 작은 수고는 불편이 아니라 선물이다.

한라산 아래 맑은 물의 대명사 교래리

삼다수 숲길은 예전에 중산간을 호령했던 테우리(말 물이꾼)와 사농바치(사냥꾼)들이 다녔던 길을 활용해 조성한 숲길이다. 인근에는 제주 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주물홍보관과 제주삼다수 공장이 있다. 숲을 향해 걸어가다 보면 교래리에 상수도가 공급되기 전 이 마을 주민들이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푸리수(파란물)도 볼 수 있다. 삼다수 숲길의 처음은 1970년대에 심어진 삼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 뒤로 조릿대길과 활엽수림이 이어진다. 봄에는 복수초 군락이 아름답고, 여름에는 산수국 군락이, 가을에는 천미천 하천을 따라 물드는 단풍이 절경을 이루는데 천미천을 따라 걷는 지질트레일 여행도 즐길 수 있다.

누구든 하루 안에 교래리를 다 둘러보고 가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좋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발길이 허락한 만큼 눈길에 보여지는 만큼 청정한 교래리를 살펴보고 다시 또 떠나오겠다는 들뜬 희망을 가져보는 곳, 언제든지 다시 오고 또 오고 싶어지는 곳이 바로 한라산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마을 교래리다.



Travel
Info

삼다수 마을 근교 여행지



제주삼다수는 왜 맛있을까?

음식도 아닌 무색 투명한 물이 ‘맛있다’고? 실제 벨기에에선 해마다 물맛을 평가하는 ‘iTQi 국제 식음료 품평회’가 열린다. 이 품평회에서 제주삼다수가 지난해 국제 우수 미각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음료계의 미쉐린 스타라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등급인 3스타를 받았다. 제주삼다수의 물맛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삼다수는 왜, 어떤 비밀이 있어서 맛있는 것일까?



세계가 인정한 특별한 맛, 그 비결은 제주 그 자체!

제주삼다수는 iTQi 심사위원들로부터 맛과 향, 조직감 등 모든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3스타로 선정, '특별한 맛'으로 인정받았다. 국내 생수 업계에서 iTQi 3스타를 수상한 것은 첫 사례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제주삼다수의 맛의 특징은 경도가 낮아 물맛이 부드럽고 흡수가 빠르며 수질이 순하다는 점. 이런 장점은 제주의 독특한 자연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화산암반층이 만든 깔끔하고 부드러운 맛

제주의 땅 속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질 토양으로 수십 겹의 화산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이 매우 탁월한 송이(Scoria)*와 클링커(Clinker)**는 물론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다공질 현무암층이 풍부하게 분포해 있어 빗물이 이 현무암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불순물과 중금속을 비롯한 각종 유해물질이 걸러진다. 이렇게 지하 420m까지 이르게 되면 빗물은 경도***가 일반 물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어 목넘김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갖게 된다.



천연 미네랄까지 풍부하게

제주섬 자체가 거대한 천연 정수기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주삼다수는 별도의 정수과정이 없이 여과와 살균과정만 거친다. 화산암반층을 거치는 과정은 맑은 물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물로도 만들어준다. 화산암층 사이를 흐르는 동안 사람의 체액과 비슷한 약 알칼리성의 부드럽고 건강에 좋은 바나듐, 실리카 등의 천연 미네랄 성분이 녹아 들어가는 것. 물과 화산암층 반응을 통해 용해된 광물질들이 적당량 함유돼 물맛이 산뜻하고 불쾌감이 없어 매일 마셔도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물이 된다.



인정받는 최고의 '물맛' 제주삼다수

제주삼다수가 맛있다는 증거는 객관적인 지표도 있다. 일본 오사카 대학 하시모토(Hashimoto) 박사는 '건강한 음수와 맛있는 음료수의 수질평가와 그 응용에 관한 연구(1989)'에서 일본 각지의 수도 물과 지하수의 미네랄 함량분석과 관능검사(Sensory test)를 통하여 물맛에 대해 O-index 기준을 제시했다. 이 O-index 지표에서 보통 지표가 2 이상이면 물맛이 좋은 것인데, 제주삼다수는 8.2로 나타났다. 사람의 체액과 비슷한 약알칼리성(pH 7.7~7.8)이자 경도가 낮은 부드러운 물(17~19ppm), 그러면서도 인위적인 오염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맑은 물. 이만하면 '맛있다'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 송이(Scoria) : 화산이 폭발할 때 고체 상태로 분출되는 물질인 화산쇄설물의 일종
** 클링커(Clinker) : 연소에 의해 생겨난 재가 덩어리를 이룬 것
*** 경도 : 물의 세기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로 물에 녹아있는 칼슘(Ca²⁺)과 마그네슘(Mg²⁺) 이온에 의해 유발되며, 정도에 따라 연수(경도 0-75), 적당한 경수(경도 75-150, 경수(경도 : 150-300), 강한 경수(경도 300 이상)으로 분류한다.

제주 겨울 명소

제주 겨울왕국 으로의 초대

멀리 수평선 너머 이글이글 떠오르는 일출, 진정한 겨울왕국이 펼쳐지는 숲길,
그리고 맑고 깨끗한 별자리를 만날 수 있는 밤하늘까지.

제주의 겨울은 자연의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겨울에 더 멋진 제주를 만나보자.

글 편집실 사진 제주관광공사



Sunrise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1 ☎ 064-783-0959

우리나라 최고의 아름다운 해돋이 성산일출봉 일출

제주의 명소 중 첫손가락 꼽히는 성산일출봉. 우리나라 최초의 유네스코 선정 세계자연유산이자 제주의 영주십경(瀛州十景)의 하나다. 제주에서도 가장 동쪽에 있어 이곳에서의 일출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돋이로 손꼽힌다. 평소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 더욱 인산인해를 이룬다. 특히 새해 첫 날에는 성산일출축제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러 모여든다.

INFOMATION

일출봉 첫 등반은 안전을 위해 1,500명으로 제한한다. 바로 옆 광치기 해변에서 새해 첫 아침을 맞는 것도 좋다.

섬 사이로 떠오르는 멋진 일출 형제섬 일출

우뚝 솟은 두 섬 사이로 빨강게 떠오르는 해를 볼 수 있는 형제섬 일출도 장관이다. 형제섬은 바다 한가운데 나란히 선 2개의 섬이 형제처럼 보인다고 형제섬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형제섬 일출은 사계해안가도 좋지만 인근 송악산에 올라 바라보는 것도 좋다. 송악산은 한라산, 산방산과 함께 오름이 아닌 '산'이라는 명칭이 붙은 곳으로 정상에 올라 바라보는 경치가 그만이다.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바다 너머 형제섬, 가파도, 마라도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INFOMATION

송악산은 소나무숲길이 잘 갖춰져 있어 해송산림욕장으로 불린다. 해안선을 따라 걷는 올레길도 산책하기 좋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송악관광로 421-1



Snow



★ 제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37-1 ☎ 064-900-8800

겨울왕국으로 성큼! 사려니숲 설경

제주의 설경 하면 한라산을 손꼽지만, 막상 한라산 등반에 나서기에는 부담이 크다. 명품 숲길로 손꼽히는 사려니숲의 풍광도 설경을 즐기기에 충분하다. 특히 눈이 오면 15km의 삼나무 산책길이 북유럽의 숲을 연상시키는 모습으로 변신한다. 눈부신 은빛 설경과 나뭇가지를 따라 하얗게 부서지는 눈을 맞으며 걸으면 겨울왕국으로 성큼 들어설 것 같은 착각이 든다.

INFOMATION

제주어로 신성하다는 뜻을 담고 있는 ‘사려니’ 숲은 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고, 길이 평탄한 편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다.

눈 속에서 누리는 즐거움, 마방목지 설경

한라산을 오르지 않고서도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로 마방목지가 있다. 제주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516도로변에 마방목지를 조성해 한라산과 푸른 초원을 배경으로 말들이 노니는 ‘고수목마’의 절경을 멋지게 재현하고 있다.

평소에는 너른 초원을 배경으로 한가로이 노니는 말을 찍을 수 있는 명소이지만, 매해 눈이 오면 탁 트인 평지를 새하얗게 덮은 설경으로 멋진 풍광을 연출한다.

INFOMATION

눈이 오면 제주 최고의 눈썰매장이 된다. 넓은 평지 곳곳에 낮은 언덕이 있어 안전하게 눈썰매를 즐길 수 있다.



★ 제주 제주시 516로 2480



Night



★ 제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산28

별이 쏟아지는 밤 용눈이오름 밤하늘

용눈이오름은 제주 오름 중에서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오름이지만, 정상에서의 풍경은 만만치 않다. 맑은 날이면 내륙쪽으로는 한라산과 백악이오름, 높은오름, 다랑쉬오름 등이 펼쳐지고 동쪽으로는 제주의 동쪽 바다와 성산일출봉, 지미봉, 우도까지 눈에 들어온다. 일출 풍경이 아름답기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용눈이오름의 매력은 바로 밤에 펼쳐진다. 거칠 것 없이 탁 트인 풍경 위로 쏟아지는 별빛을 만끽할 수 있다.

INFOMATION

정상에 오르는 데 40여 분밖에 걸리지 않아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는 코스다.

서귀포항을 빛내는 멋진 야경 새연교 야경

밤이 되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새연교, 서귀포항과 새섬을 연결하는 새연교는 2009년 세워진 이후 서귀포항의 새로운 명소로 손꼽히고 있다.

제주의 전통 배인 ‘테우’를 모티브로 형상화한 새연교에는 주탑에 알록달록한 조명시설이 설치돼 있어 늦은 저녁에도 멀리서도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 잡는다.

INFOMATION

새연교가 연결하는 새섬과 해질녘 풍경, 수평선 가까이 문섬을 사이에 두고 오가는 선박들의 운치도 멋지다. 여름에는 다양한 공연도 펼쳐진다.



★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 064-760-3471

必환경 시대,
제주삼다수의 노력

삼다수 페트병이
지구를 지킨다고?

천혜의 자연과 청정한 환경을 자랑하는 보물 같은 섬 제주. 꽃자왈과 올레길 등 유명한 환경 명소와 깨끗한 화산암반수 등 제주의 환경가치를 제대로 보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먹는샘물 시장의 리더이자 제주의 대표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깨끗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공사의 자원순환프로젝트인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운영 등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필환경 시대, 자원순환에 주목하라

지금 세계는 필(必)환경 시대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가 ‘하면 좋은 것’ 정도였다면 이제 는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대규모 극지방 빙하 해빙, 아마존 화재로 인한 열대우림의 유실 등 환경파괴로 인한 경고가 세계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에 대한 고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폐기물을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이고, 향후 자원 고갈에

대처하기 위해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에 주목해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광물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원빈국임에도 그대로 버려지는 자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5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을 제정했고, 자원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눈에 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환경 운동 ‘플라스틱 프리 챌린지’처럼 소비자가 직접 참여

하는 캠페인이 유행하고, 신속함과 편리함으로 인기를 끌던 새벽배송 서비스도 일회용 포장재를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소비자의 지적에 따라 포장재를 바꾸는 등 환경 친화적인 노력을 하게 됐다. 소비자의 관심이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업들도 점점 더 친환경 경영을 위해 노력하게 된 것이다.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업계의 노력

새벽배송 서비스로 소비자의 주목과 지적을 동시에 받은 마켓컬리는 올해 9월부터 ‘올 페이퍼 챌린지’(All Paper Challenge)를 표방하며 플라스틱 지퍼백을 전부 종이 포장지로 바꿨다. 배송에 들어가는 모든 포장재는 100% 종이로 바꾸고 아이스팩은 워터팩으로 바꾼 것이다. 또 이 포장재를 다음 주문 때 내놓으면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 1위 배달업체 배달의 민족은 지난 4월부터 일회용 수저·포크 수령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했다.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한다는 비판을 수용해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더 나아가 배달음식점을 위한 친환경 용기도 판매한다. 배달음식 소모용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배민상회’를 통해 친환경 종이 용기



“
제주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하고,
뒤이어 2019년
9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
”

를 50% 할인해 기존 일회용 용기와 비슷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업주들의 환경보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는 다양한 친환경 의류 제품을 선보이며 윤리적 패션을 지향한다. 노스페이스의 ‘에코 플리스 컬렉션’은 플라스틱병을 재활용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제품이다. 에코 플리스 컬렉션의 대표 제품인 ‘싱크 그린 플리스 재킷’은 국내 최초로 지퍼 테이프까지 재활용 소재를 사용해 100% 플라스틱병 재활용 원단을 적용한 제품이다. 노스페이스는 2016년부터 모든 제품에 ‘에코 퍼’ 100% 적용을 통한 퍼프리를 실천하는 등 윤리적 패션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환경부

이러한 세계 각계의 추세에 발맞춰 환경부도 재활용과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 기준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최하 등급을 받을 경우 최대 30%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산

무기물질	칼슘(Ca)	칼륨(K)	나트륨(Na)	마그네슘(Mg)	불소(F)
함량(mg/L)	2.5~4.0	1.5~3.4	4.0~7.2	1.7~3.5	불검출
●품목명: 먹는샘물 ●제품명: 제주삼다수 ●원수원: 암반대수층 지하수 ●영업허가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제2호 ●용량: 0.5L ●용기재질: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제조일자는 용기 상단에 별도 표기					
●직사광선을 피하고, 계통에 외부침수가 스며들 수 있으니 청결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용기 변형/파손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째 가열 또는 동결하지 마십시오					
●차게한 용기를 상온 보관시 온도차이에 의한 ‘딱’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가열 또는 냉동시 천연미네랄 성분으로 인해 흰색침전물이 발생될 수 있으나, 품질에는 이상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십시오 ●개봉 후에는 변질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냉장 보관하여 가급적 빨리 음용하시기 바랍니다. ●본제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품 또는 교환: 공동채약(주) 고객센터 또는 구입처 ☎080-024-0030					
제조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남로로 1717-35 (TEL.: 064-780-3300)				
판매원:					

하도록 하고 있다. 제품에 부착하는 라벨도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분리성 접착제로 변경해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 접객업소에서 종이컵이 사용이 금지된다.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 컵을 구매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에서는 2021년부터 일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하며 숙박업소에서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환경부는 친환경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품의 생산부터 소비,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제품의 환경 영향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친환경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유

도하기 위한 것이다. '탄소발자국 인증'이란 생산에서 소비, 폐기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7가지 환경성 정보(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 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발자국)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 친환경 공기업으로 도약하는 제주개발공사

제주개발공사는 2018년 12월 탄소발자국 인증을 취득하고, 뒤이어 2019년 9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했다. 이를 통해 제주삼다수 제품의 환경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환경신뢰성이 우수한 제품임을 입증했다. 사실 공사는 제주삼다수 제품을 처음 출시한 1998년부터 라벨과 마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친환경 재질을 적극 도입했다. 페트병을 무색 단일 재질로 전환하고 경량화해 폐기량을 줄이고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라벨을 보다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라벨 접착제를 바꾸고 라벨 분리 표시를 적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원순환을 위해 쓰레기가 방치되는 것을 막고 재활용 쓰레기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2018년 10월부터 꾸준히 제주 전역에 총 16대의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첫 선을 보인 이후 일 년 동안 모두 6,150명이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를 이용했고 페트병 1만 9,776개, 캔 5,516개가 모이는 성과를 거뒀다.

공사는 그간 진행해 온 다양한 친환경 경영활동에 더해 한층 효율적인 자원순환 활동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천하며 친환경 공기업으로의 도약을 가속화할 것이다. 필(必)환경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사회적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하는 공사의 행보가 더 맑은 제주, 더 가치 있는 제주를 만들어갈 것이다.

숫자로 보는 친환경 경영 TOP 10



친환경 재질 도입 **1998** 년



페트병 폐기량 **752** 톤 감소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이용자 수 **1만여** 명



500ml 페트병 무게 **1.5g** 줄임

한 눈에 보는 친환경 경영 TOP 10

1	공병	2017년 10월 단일 재질 무색 병 전환	2018년 5월 500ml 무게 1.5g 감량	페트 경량화	6
2	라벨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1998년부터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적용	2020년 1분기 500ml 재활용 우수등급 선 획득	재활용 우수 등급	7
3	마개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1998년부터 비중 1 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적용	2018년 10월부터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시범 설치 사업 진행	페트병 자동수거 보상기	8
4	접착제	2018년 8월 라벨이 쉽게 분리되도록 개선	2018년 12월 탄소발자국 인증 취득	탄소발자국 인증	9
5	라벨 분리	2019년 10월부터 라벨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라벨 끝 부분에 분리 표시	2019년 9월 환경성적표지 인증 취득	환경성적 표지인증	10

자동수거보상기 설치 위치 안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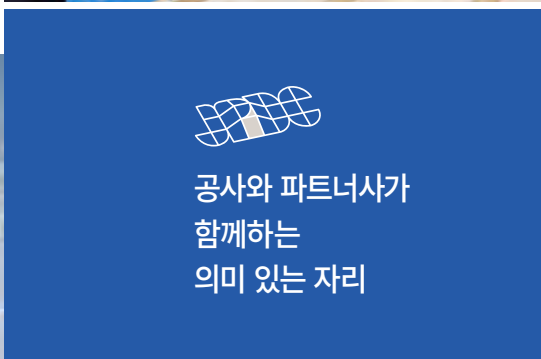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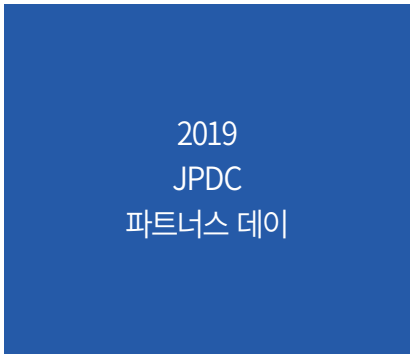
1 농협하나로마트 노형점 후문 옆(2대)	2 제주국제공항 3층 렌터카 도착장 앞(2대)	3 삼도1동 재활용도움센터 내부(2대)	4 농협하나로마트 제주점 정문 앞(2대)	5 아라동 재활용도움센터 내부(2대)
6 주상절리 입구(1대)	7 외돌개 야외주차장(1대)	8 정방폭포 안내소 화장실 옆(1대)	9 제주대학교 학생회관 실내(2대)	10 사려니숲길 입구 안내소 화장실 옆(1대)

함께 만들 미래,
아름다운 동행

‘2019 JPDC 파트너스 데이’ 개최

제주개발공사가 파트너사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2019 JPDC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 제주삼다수를 위해 각계에서 노력한 파트너사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공사의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함께 미래로 전진해 나가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협력 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하기 위한 자리다.

글 권내리 사진 김도형



공사와 파트너사가 함께하는 의미 있는 자리

“여러분은 우리 공사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트너 가족 여러분과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해가는 동반성장의 장을 만들겠습니다.” 공사 오경수 사장의 강한 의지 표명에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한다. 공사가 협력사에 감사의 전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2019 JPDC 파트너스 데이’ 현장이다. ‘2019 JPDC 파트너스 데이’는 지난 11월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함께 만들 미래, 아름다운 동행’을 테마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제

주삼다수의 유통을 맡고 있는 광동제약, LG생활건강을 비롯한 파트너사와 제주개발공사 임직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2019년 사업 성과와 2020년 계획을 발표하고 제주삼다수 매출 3천억 시대의 포문을 여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지하수 관리를 통해 국내 먹는샘물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했다. 또 고기원 품질연구본부장이 제주삼다수의 특성과 생산공정, 품질관리, 취수원 보호와 연구 등 전 과정을 설명하며 제주삼다수만의 강점을 설명했다.

필(必)환경 시대 제주삼다수의 활동 강조

이와 함께 공사가 필(必)환경 시대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속가능경영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경영 TOP10’도 소개됐다. 친환경 제품 생산을 위한 페트병 경량화 노력을 비롯해 자원

순환을 위한 라벨분리표시와 자동수거보상기 운영 등 모두 10개의 항목을 설명하고, 앞으로 친환경 경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병의 라벨 분리 배출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됐다. 제주삼다수는 최근 라벨 디자인을 개선. 라벨 끝 부분에 빨간 색의 분리 표시를 해 라벨을 더욱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가자들이 제주삼다수의 라벨을 떼어보고 얼마나 쉬운지 체험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친환경 노력을 느끼고 동참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동반성장을 위해 ‘함께 꾸는 꿈’

또한 파트너사와 동반 성장을 이룩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상호 간 청렴 윤리 인권 경영의 의지를 담은 ‘동반성장 헌장’을 발표했다. 모든 고객사와 협력사가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파트너사의 경영에 영향이 미치는 불필요한 규제 개혁에 적극 앞장선다, 파트너사 임직원 개개인의 인권, 노동권, 인격을 존중하는 윤리적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공정한 절차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에 노력한다 등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어 상생협력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식도 가졌다. 올해는 (주)MBC플레이비와 (사)서울소공인협회, 알베로가 우수 파트너사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표현한 샌드아트, 초대가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마련해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삼다수 품질혁신은 우리 손에!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은메달 수상

국내 No.1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제주개발공사. 그 끊임없는 노력을 대내외에 인정받는 낭보가 들려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최하는 제45회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삼다수생산3팀 품질분임조 ‘이글스’와 삼다수생산2팀 품질분임조 ‘CAP’이 대통령상 은메달을 수상하며 품질 혁신활동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글 권내리 사진 전재천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2개의 은메달 수상해

제45회 전국품질분임조경진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경상남도, 거제시 공동주최, 한국표준협회 주관으로 올해 8월 26일부터 5일간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개최됐다. 국가품질경영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품질경영 혁신을 통해 국가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기업을 포상하는 자리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전국 298개 분임조 2,700여 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연을 치렀는데, 그 결과를 시상하는 자리에 우리 공사 품질분임조가 두 팀이나 참석했다. 삼다수생산3팀 품질분임조 ‘이글스’와 삼다수생산2팀 품질분임조 ‘CAP’이 대통령상 은메달을 수상한 것이다. 특히 ‘이글스’는 지난해 동메달에 이어 은메달을 수상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

생산 공정 개선으로 은메달 획득한 ‘이글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값진 메달을 얻어 정말 기쁩니다. 2004년부터 꾸준히 설비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생산공정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노력이 이번 은메달 수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이글스 분임조 김용 조장의 말이다. ‘설비(TPM) 부문’에 출전한 이글스는 품질을 지키면서도 설비 고장으로 인한 정지시간을 줄이겠다는 주제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설비종합효율이 기존보다 11.5% 향상된 것은 물론, 최근 3년간 3억 6,400여 만 원의 경비를 절약하는 효과까지 거두는 데 성공했다.

병뚜껑 불량률 제로에 도전하다, ‘CAP’

‘자유형식 부문’에 출전한 ‘CAP(Clean And Perfect)’은 캡 제조공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삼다수 페트병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병뚜껑인데, 이 부분의 제조공정인 캡핑 과정을 개선해 불량률을 줄이는 데 집중한 것이다.

“첫 도전이라 시행착오도 많고, 고민도 많았습니다. 지역예선에서 같이 참여한 이글스 분임조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오히려 답답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했는데 그 덕분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내년 대회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CAP 분임조 공문성 조장은 ‘내년에도 더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가품질경영대회 은메달 획득은 현장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혁신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기에 더 의미가 깊다. ‘최고의 물’을 넘어 ‘최고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 국내 No.1 먹는샘물 제주삼다수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제주개발공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CAP 품질분임조 소감 한마디



조한울 사원

전국 제조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임조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승민 대리

처음에는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지만 막상 대회가 끝나고 메달을 받으니 너무 기쁩니다. 다음 대회에는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김태혁 사원

선배님들 뒤에서 자료 정리하는 역할만 해서 항상 미안했습니다. 다음 대회에는 제가 앞장서서 준비하겠습니다!



공문성 대리

대회를 준비하면서 고생한 분임조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응원하고 지원해주신 사장님, 공장장님, 본부장님, 직원분들 팀장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대회에는 보다 높은 곳을 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글스 품질분임조 소감 한마디



강택건 주임

회사를 대표하여 이렇게 큰 대회를 참가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우리 분임조의 명예를 걸고 상을 받는 것이 정말 보람되고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대회를 발판으로 삼아 기발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공사에 기여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태영 사원

우리 분임조가 수상을 하게 되었지만 저희가 잘해서 이뤄낸 결과가 아닌 팀원 모두가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 노력을 인정받는 자리여서 뿌듯하고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용 대리

조장으로서 자료 준비하는 조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게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꼭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대회 참가를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신 팀장님, 발표기간에 남아서 현장에서 고생하신 우리 팀원들 모두 고맙습니다.

JPDC NEWS



1

유튜브 바이럴 영상 2탄 '삼다스톤의 비밀' 360만 뷰 돌파

국내 먹는샘물 No.1 제주삼다수 유튜브 영상이 기존의 정형화된 광고 캠페인의 틀을 깨며 흥행몰이에 성공하고 있다. 지난 11월 공개된 '삼다스톤의 비밀'이 공개 3주만에 360만 뷰를 돌파한 것.

'삼다스톤의 비밀'은 지난 6월 선보인 '수타트랙'에 이은 두 번째 바이럴 영상으로 최고의 물만 고집하는 까다로운 외계인이 우주에서 가장 깨끗한 물을 찾아 제주를 방문한 뒤 넘치는 활력과 능력을 가진 지구인들이 마시는 제주삼다수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다. 코믹한 설정과 지구를 넘어서는 영상 스케일, 신홍 예능 강자로 급부상한 허재 전 프로농구 감독의 출연으로 더욱 큰 화제가 됐다. B급 코드의 유쾌함 속에서도 제주삼다수의 차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홍 예능 강자로 등극한 농구감독 허재 특유의 분노 캐릭터가 웃음과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실제 이번 영상이 공개된 후 4050세대 중심이었던 제주삼다수 유튜브채널 주요 구독자가 18세~44세로 확대돼 젊은층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번 영상은 용머리해안과 수월봉 검은모래해변, 사계해안 하모리층 등 화산섬 지형이 잘 드러나는 곳에서 촬영을 진행해 독특한 제주의 풍경을 보여주었고, 별책별력을 뜻하는 제주 사투리 '괭락괭락'이 스토리와 연결되며 많은 이들에게 각인되는 효과도 거뒀다.

제주개발공사는 앞으로도 '4차산업혁명'을 핵심 키워드로 친근하고 재미있는 콘텐츠 발굴, 이종(異種)산업/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 고객참여형 캠페인 등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는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 다양한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할 예정이다.

VOL. 01



2

삼다수 공장 부품 국산화, 지방공기업 혁신 우수 사례 선정

국내 소공인과의 상생·발전을 통해 공장 가공 부품의 45%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거둔 공사의 사례가 행정안전부가 평가하는 지방공기업의 상생 및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공사 오경수 사장은 지난 11월 13일 「2019년도 지방공기업 혁신성과 보

고대회 및 CEO 포럼」에서 이 같은 협력 경영 성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삼다수 공장의 부품을 국산화 하며 국내 소공인과 협력 경영을 시행하고, 운송기사 직접 계약을 통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 점이 행정 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2016년부터 삼다수 공장 가공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 숙련된 장인 기술을 보유한 문래 동 소공인과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성과 공유제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공사는 외산 부품의 45%를 국산화하고 5억 원 상당의 원가 절감 효과를 얻었다. 납품 기일도 3배 가까이 단축했다. 문래동 소공인은 연간 5억 원의 고정 매출을 확보해 안정적인 사업을 이어나가는 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일대일 직접 거래를 통해 납품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제주삼다수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 기사와의 직접 계약을 추진해 지역 운송기사 수입이 10% 가량 상승하는 성과를 얻은 것도 지방공기업 상생 발전 사업의 대표 성과로 손꼽히고 있다.

공사 오경수 사장은 혁신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삼다수 공장 부품 국산화 사업은 상생 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는 가장 빠르고 빠른 길이라는 점을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며 선한 영향력을 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3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 성료

제11회 제주물 세계포럼이 지난해 11월 10일 개막해 이틀간의 일정으로 막을 내렸다. 제주물 세계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물 문제 극복을 위한 학술적, 기술적,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 수자원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제주개발공사가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화산섬의 지하수 보전과 활용’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참가자들은 공공자원인 지하수의 보전과 이용 간 균형에 중점을 두면서, 수자원의 가치 창출이 환경, 지역, 시민 등 사회 기여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4

제주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주시 내 사회복지기관 등은 지난해 12월 2일 메종글래드 제주 2층 크리스탈홀에서 ‘제주家 행복한 제주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은 주거복지센터 개소 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발굴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5

‘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주최 청렴문화의 날 행사

12월 9일 세계 반부패의 날과 함께 반부패주간(12/1~14)을 맞아 제주 지역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렴문화의 날’ 행사가 지난해 12월 3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주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민간부분 공동의장인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이 나서 청렴문화의 날 행사 개최 취지와 함께 윤리경영 의지를 전파했으며, 개그맨 안상태 씨와 함께하는 청렴토크콘서트와 청렴정신을 일깨우는 영화도 상영했다. 오경수 사장은 “반부패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있는 문화가 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 저희 공사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6

안전문화대상 행안부장관 표창

공사는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문화 확산과 탄력적인 순찰활동을 연계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인 ‘한걸음 나눔 순찰 사업’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해주는 ‘릴레이 세이프 하우스’ 사업을 추진해 안전문화 활동 기반을 조성한 부분을 높게 평가 받았다.



7

‘삼다수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 성료

공사는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2019 삼다수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삼다수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는 공사가 소외된 이웃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정을 나누는 취지로 도내 봉사단체와 함께 2015년부터 매년 진행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삼다수봉사대와 지역 봉사단체 등 25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이웃들과 함께 나눌 김장김치 3만 1,000kg을 함께 만들어 도내 취약계층 3900여 가구에 전달했다.



8

제주개발공사 공식 웹진 ‘삼다소담’ 오픈

공사는 지난해 12월 6일 웹진 ‘삼다소담’(http://webzine.jpdc.co.kr)을 공식 오픈했다. ‘삼다소담’이라는 웹진명은 예로부터 바람, 여자, 돌이 많은 제주의 특징적인 모습을 표현한 ‘삼다(三多)’라는 단어와 소소한 웃음을 줄 수 있는 즐거운 이야기를 뜻하는 ‘소담(笑談)’을 조합해 탄생했다. ‘소담’은 순우리말로 ‘탐스럽다’ ‘풍족하다’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어 도민의 기업으로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공사인들의 이야기, 제주의 즐거운 이야기와 유용한 정보를 담아 독자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웹진 ‘삼다소담’은 매월 말 온라인으로 독자에게 배달되며, 공사 사보도 오는 12월 말 창간해 매 분기마다 발행될 예정이다.



제주개발공사 Channel

1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를 알고 싶을 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jpdc.co.kr

제주의 발전과 제주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활동과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공식 홈페이지를 만나보세요.

대표 브랜드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먹는샘물사업, 음료사업, 지역개발 사업, 공익사업 등 제주개발공사의 핵심 사업과 활동 등을 자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



공사 웹진 바로가기

신기한 물 이야기, 즐거운 제주 이야기가 가득!

월간 웹진 '삼다소담'

<http://webzine.jpdc.co.kr>

제주의 물 이야기와 즐거운 제주 소식을 풍성하게 담아내는 월간 웹진 '삼다소담'으로 오세요.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소통 플랫폼으로 다양한 공사의 활동과 흥미로운 물 이야기, 즐거운 제주 이야기까지 가득합니다.



3



공식 포스트 바로가기

풍성하고 재미있는 제주삼다수 이야기

제주삼다수 공식 포스트

<https://post.naver.com/samdasoostory>

제주개발공사의 대표 브랜드이자 먹는샘물 No.1 '제주삼다수'를 만나보세요. 제주삼다수 공식 포스트에서는 제주삼다수에 대한 풍성하고 재미있는 물 이야기와 트렌디한 제주 소식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온' 행복주택

행복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제주개발공사는 제주도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공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해 사회공헌에 앞장서겠습니다

누적 당기순이익 5,253억원 중 2,344억이상 각종 사회환원
(배당금 2,010억원, 기부금 334억원)

*마음에 온 브랜드 스토리 : 정성을 다해 지은 집,
거주하는 고객의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집을 짓자는 철학을 바탕으로,
고객이 오랜 시간 기다리던 이상적인 주거공간을 실현시켜 줍니다
그래서 마음에 쏙 든 집, 마음에 들어온 집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식 유튜브 바로가기



공식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공식 페이스북 바로가기

제주의 가치를 발견하고 공유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JEJU PROVINCE DEVELOPMENT CO.